

강진군, 꿀벌 월동피해 방지 총력 대응

희생지원금 긴급 투입...월동피해 방지 기술 교육 실시

“농가 스스로 월동 봉군 관리 철저하도록 현장 지도 총력”



강진군은 지난해 12월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양봉 농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꿀벌 월동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꿀벌 집단 소실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체질량 급감, 응애, 말

벌류의 포식성 해충 피해 급증으로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다발생하고 있어 기술교육 강화와 재해관련 정책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군에서 실시한 월동 전 피해 조사 결

과 50% 전후의 소실 피해가 집계됐으며, 전문가들은 유밀기까지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된다면 봉군 붕괴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꿀벌 최고 전문가인 국립농업과학원 김동원 박사를 초빙해 월동 꿀벌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군·기술센터·양봉협회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권역별 순회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에서는 꿀 생산량 급감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이 최소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희생지원금 11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이번 월동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몇 년간 복합적인 원인의 꿀벌 집단 폐사로 많은 농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월동관리 및 병해충 방제 기술을 집중 교육하고, 농가 스스로 월동 봉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30억원 달성 “농가소득 쑥쑥”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14개월만에 매출 3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10월 개장, 인근에 배후도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농가의 판로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개장 이후 12만명에 가까운 군민이 이용했으며 개장 당시 200여 생산·입점농가가 500여 농가까지 확대되면서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일 오전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들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성장세에 힘입어 해남군은 전국 15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먹거리 활성화 평가 결과 2022년도 지역 먹거리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30억원 매출을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신속한 공무원 숙소 입주식 가져

체력단련장과 회의실 등 갖춰...신규 공무원 위주로 입주 가능

진도군 공직자 숙소가 새로 신축문을 열었다.

진도군수 김희수는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새로 신축한 진도군 공직자 숙소에서 김희수 군수와 입주자 등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지난해 12월30일 가졌다.

“진도군 공직자 숙소”는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하였다.

연면적 2,43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에 들어가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8일 완공됐다. 원룸형 객실 40세대와 회의실, 체력단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소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숙소 입주 공무원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계발을 통해 군민과 함께 민생 현장을 발로 뛰어 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위민행정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추억 속 영화 나들이’ 문화체험

장흥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은희)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총 315명을 대상으로 총 7회기로 찾아가는 문화체험 ‘추억 속 영화 나들이’를 운영했다.

‘추억 속 영화나들이’는 평소 영화 관람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이나 소외 계층이 문화체험을 통해 자아실현과 소외감 극복, 노인생활의 안정감과 행복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추억 속 영화나들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인솔하여 장흥군 정남진시네마에서 ‘압구정’, ‘영웅’을 관람했다.

영화 관람에 참여한 복지관 관계자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은 “평소 영화

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화관에 데려다 주어 영화 감상을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양은희 장흥종합사회복지관장은 “장흥군내의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문화체험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복지관이 앞장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아실현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비생산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독립적, 생산적 존재로 변화시켜 노후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주려고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청정바다·난대숲 따라 걷는 ‘완도 남파랑길’ 인기

코리아 둘레길 86, 87, 88코스...완도 특산품 선물

청정바다와 국내 최대 난대림숲을 따라 걷는 ‘완도 남파랑길’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를 잇는 둘레길의 남해안 구간 86-88코스인 ‘남파랑길’은 청정바다와 난대숲 등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탐방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남파랑길 86코스는 옛 남창교부터 작은 포구와 형형색색 지붕이 인상적인 완도 동부 어촌마을, 장보고 대사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공원을 거쳐 완도해조류센터에서 끝난다.

완도 남파랑길 3개 코스는 중 8시간여가 소요되는 최장 거리지만 대부분 평지라 트레킹이 수월하다.

남파랑길 87코스는 완도 해조류센터에서 시작해 완도 해변공원, 다도해 일출 공원, 완도타워, 정동리 구계등을 지나 화흥초등학교에서

끝난다. 완도타워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정동리 구계등은 작은 돌에 파도가 부딪혀 나는 소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멧매리기 좋은 장소로도 유명하다.

남파랑길 88코스는 화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화흥리 마을-상왕봉-완도수목원-신학리 남파랑 쉼터-원동리 코스다. 중간에 상왕봉을 등산하는 코스가 포함돼 있다. 상왕봉에 도착하면 파란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다도해의 비경을 볼 수 있다.

남파랑 쉼터가 자리한 신학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노르딕워킹과 해초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두루누비 어플을 설치한 뒤 완도 남파랑길 3개 코스 중 한 코스만 걸어도 미역과 다시마 등 완도 특산품이 주어진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심진흥원

전라남도